

## 초등학교 체육교과과정 중 무용수업의 교과 분리에 관한 연구

조남규 · 김유진\*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무용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무용의 체육교과에서의 분리 타당성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초등무용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무용교육의 실체와 본질, 그리고 체육교과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창의성, 예술성, 음악적 요소, 경쟁, 평가방법의 관점에서 체육과 무용이 상호 분리되지 않은 경우와 분리 시행되었을 경우에 무용과 체육교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단점과 제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두 가지 경우에서의 문제점을 비교 확인함으로써 교육과정 분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강화하고 무용교육의 교과분리가 인정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무용교과, 체육교과, 무용교육 분리, 교과분리, 초등 무용 교육 과정, 초등 무용 교육 발전 방안

### I. 서론

오늘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전통 사회보다 다양한 상황과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무쌍한 양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채로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양성이 인정되는 만큼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성격이 구축되고 사회 흐름이 빠르게 바뀌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만으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제시됨에 보편적인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응대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교육 방향은 전인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응용력을 향상시켜 신축적 적응 및 역할 수행을 올바르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예상 밖의 상황이나 문제 등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기술, 상식을 재조합하여 대처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시 되는 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는 다채로운 체험과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체성과 능동성을 잃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최근 개정된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이라고 교육의 의미를 밝히고, 전인적 성장,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간, 문화적 소양 및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공동체 의식 등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점(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6)에서도 역시 오늘날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 교신저자 : yvj1113@naver.com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초등 무용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 7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기는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성장을 이루는 시기인데, 신체적으로는 원만한 발달을, 정신적으로는 분화 발달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도와 중요성이 점점 커지기도 한다. 결국 해당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 발달은 물론 자아존중감과 가치관의 긍정적인 확립이 달성 과제이라 할 수 있는데 무용경험은 전신의 움직임과 리듬과 함께 비교적 긴 시간동안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신체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내적 감정을 표출하며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그 기능이 크다. 또 무용교육이 과정 중 여럿이 함께 결과물을 만들고 완성하는 활동이 전개될 수 있어 사회성 발달은 물론 원만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므로 초등 유아에게 매우 적합한 활동인 것이다.

이와 같은 초등 무용 교육의 의의는 일찍이 인정되어 체육 교과와 한 과정으로 편성돼 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초등 무용 교육이 체육 교과와 한 영역으로 구성돼 전개되는 것이 앞서 논한 초등 무용 교육의 의의를 충분히 실현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용교육의 독자성과 체육교과의 의미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는 체육을 '기능중심의 교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체육교육 현장에서는 운동기능의 함양을 중점으로 지도하고 이에 대한 수준과 능력으로 교과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고 있어 무용교육의 목적과는 방향이 부합하지 않는 바이다. 체육교과의 목표 또한 '운동기능 습득'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내용체계 표에도 관련 활동 혹은 스포츠의 기능을 익히는 것이 중심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초등 교육 과정 내의 무용 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오랫동안 우리 교육에서 무용은 체육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다변화, 급변화 하는 현대 사회에서 무용 교육의 의의와 위상은 달라졌고 그러므로 무용 교육이 체육 교과와 일환으로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실제로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담당자 사이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고찰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초등무용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초등무용이 체육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응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초등무용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고찰은 인식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무용의 중요성과 가치를 논하는 한편 체육과 무용의 상이한 교육내용 및 체계성을 연구하여 체육교과로부터 초등무용의 교과분리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초등무용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초등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실천되어야 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이 체육 교과와 한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교과 분리를 통해 독자적인 교과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독자적 교과로의 타당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은 초등체육교육과 초등체육교육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무용교육이 된다.

## 2. 연구 도구 및 방법

초등 교과 구성과 지속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활발히 되어왔고, 그중에서도 체육교과 내에서의 무용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체육 교과와 무용 교육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논문 및 학술자료가 1990년 이후부터 약 2300건에 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식 연구 논문과 학술자료를 이용하여 문헌 고찰을 이루어 보려 한다. 단, 탐구 문헌은 2000년 이후의 자료로 제한할 것이다. 가장 최근 시행된 교육과정의 개정이 2015년도이지만 체육 및 무용과 관련한 괄목할 만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으며 나아가 현재의 체육교과와 무용교육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부서의 문헌을 포괄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Ⅲ. 초등학교 체육 교과 내 무용교육 현황

### 1. 2000년대 초등 체육교육의 특징 및 방향

과거의 체육교육은 스포츠의 기능을 익히고 이를 향상하여 신체적 기능을 활성화 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체육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스포츠 선수의 양성이 아니므로 이러한 교육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다. 먼저 교사 1인이 여러 스포츠 종목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데 대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교육방식 자체가 학생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체육교과는 교과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교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초등 체육교육은 기능적 측면에만 집중하던 과거의 교육방식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기능만을 가르치고 습득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통한 건강 및 체력 단련, 스포츠맨십 향상, 공동체 의식 함양, 합리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즉 체육은 과거의 기능 중심적 교과에서 수행 중심적 교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주도의 능동적 체육교육이 우선시 되고 정제된 스포츠 기술의 함양보다는 스포츠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초등 체육교육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과거에는 교사의 이론적 가르침, 혹은 움직임 그대로 모사하는 초등 체육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이와 달리 다양한 게임 및 활동으로 신체활동을 활성화 하는 교육내용으로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체육교과 교육과정에서 최근 주목하는 것은 농구, 축구, 체조와 같은 종목의 구체화보다는 초등 체육에 기대되는 신체 활동을 포괄하도록 교육과정 내용체계 표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 경쟁, 도전, 표현,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대영역, 도전활동의 경우 기록에 도전하는 중영역, 도전활동 중 속도 및 거리와 같이 집약적 성취 및 기능 활성화에 도전하는 소영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것이 지도내용의 기준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초등 체육교과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신체활동을 종합적으로 체험해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

## 2. 초등학교 무용수업의 목표와 과정

### 1) 초등 무용교육

우리나라의 초등 무용은 1955년 제1차 교육과정 제정 이래 리듬놀이, 춤 놀이, 무용, 리듬 및 표현운동, 표현활동 등의 명칭으로 변화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무용교육도 역시 무용을 통한 배움으로 이상적 인

간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초등 무용교육은 신체활동은 통한 정서함양과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등 무용교육의 목표는 신체의 활발한 성장 및 자아개념의 발달이 초등 시기에 중요한 만큼 무용교육을 매개로 여러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초기의 초등 무용교육도 전문적 기능 및 예술성에 중점을 두어 초등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교사 스스로 지도에 부담을 가져 교과내용의 활용여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다(오세복, 2006). 그러나 개정을 거듭한 현재의 초등 무용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체발달, 협동심 함양, 창의력 및 표현력 향상 등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2) 무용교육 분석

현재 체육교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무용교육 과정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초등 1, 2학년의 경우 무용교육은 모방과 흉내 내기를 통한 신체의 표현이 수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아동의 신체 지배력이 미숙하여 창의적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은 신체활동에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쉽게 피로하고 싫증을 내며 사물에 대한 추상적 이해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물을 통한 흥미 위주의 움직임 표현이 무용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4학년의 경우에는 이동 움직임과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 등 움직임을 언어로 승화하여 활용하는 표현활동이 제시되어 있어 보다 창의적, 주체적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신체와 공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표현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게 마련돼 있다. 또 리듬표현으로 공, 리본, 후프를 이용한 체조가 교육되고 음악줄넘기나 율동과 같은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 음악과 함께 하는 신체표현의 이해가 이루어진다.

5, 6학년의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전 학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어 무용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여러 움직임을 구상하고 표현해보며 개방성, 독창성, 창의성을 갖춘 신체표현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표현가치, 심미안, 판단능력 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초등학교에서의 무용 교육은 1, 2학년에게 즐거운 생활에서의 놀이 및 표현, 감상, 이해로, 3, 4학년에게 표현 방법과 기본 움직임의 활동으로, 5, 6학년은 민속춤과 창작표현을 핵심으로 삼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처럼 학년 별로 주력하는 핵심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용 범위는 일정한 범주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범주 내에서 교육이 심화 및 응용되는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 무용 교육의 전체 요소를 그 특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양한 움직임 익히기, 민속춤 익히기, 탐색하기 및 표현하기, 창작하기 및 감상하기가 그것이다.(채순희, 2006)

## 3. 초등무용교육 운영 실태 상황

김미경(2011)은 초등학교 무용교육이 체육교과 과정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무용교과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의 12개 초등학교 재직 교사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28가지 문항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문항과 그에 따른 결과를 몇 가지 선정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인 '초등학교 수업현장에서 체육 교과과정에 명시된 무용단원 수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34명인 반면, 보통이라는 100명,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90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의 40%가 체육교과 내의 무용단원 수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다음으로 2번 문항은 '무용교육이 아

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이에 전체의 91%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5번 문항은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무용단원 목표는 실제 학교수업에서 달성되고 있는가?'인데 이에 대해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16.9%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으나,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전체의 35.2%를 차지해 무용교육이 교육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충분히 전개되지 못함을 파악할 수 있다. 6번 문항은 '체육연간 계획서 작성 시 무용수업을 계획서에 포함시키고 있는가?'인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75.9%인 반면 아니다라고 답한 교사는 24.1%로, 4명 중 1명의 교사는 체육 교육에 있어 무용 수업을 제대로 안 다루고 있음이 나타났다. 단, 그 이유가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물리적 환경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홉 번째 문항은 무용수업이 어떤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교과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53.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필요시에 비정기적으로 진행'이 30.4%를 차지했고 학교행사 시에만 진행이 8.0% 무용수업을 거의 하지 않음이 5.8%, 기타가 2.2%를 각각 차지했다. 14번 문항은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만으로 수업을 계획, 진행,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인데 이에 '아주 그렇다'가 1.8%, '그렇다'가 21%, '보통이다'가 29%, '그렇지 않다'가 42.9%, '전혀 그렇지 않다'가 5.4%를 기록해 많은 교사가 무용교육을 전개 및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파악됐다. 15번 문항 또한 유의미하다. 해당 문항은 '무용단원을 학습할 때 교과서 활용 극대화를 위한 준비 조건이 무엇인가?'인데 '수업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 맞는 교과서 개발', '무용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변화', '시설 및 교구 확충',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이 약 12~13% 내외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20번 문항은 '무용수업에 가장 가르치기 힘든 분야는 무엇인가?'인데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을 포함한 예술무용이 43.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1번 문항은 학생 개개인의 평가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 '적극적인 수업참여도'가 48.2%, 리듬이나 움직임의 이해도가 44.2%, 개인의 특기 및 기능이 3.6%, 그룹의 참여도가 4%로 나타났다. 22번 문항은 무용 수업시 장애요인을 묻는 것인데 '무용 지도 능력 부족'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과서나 지도서를 통한 지도의 어려움'이 16.1%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무용교과의 이해 부족, 소질과 적성에 맞지 않음, 참고 자료 부족, 대학에서 배우지 않아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3번 문항인 '초등학교에도 무용전담교사가 필요한가'에는 50%의 교사가 그렇다가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8.4%였으며 모르겠다는 11.6%를 기록했다. 24번 문항은 '무용전담교사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 '무용교육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으로'가 44.3%로 가장 높았고 '전담교육이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므로'가 29.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 외에도 '일반교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17.4%, '일반교사의 직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가 7%로 나타났다. 25번 문항에서는 반대로 무용전담교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물었는데 '일반교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서'가 5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육 수업만으로 충분해서가 23.5%를 차지했다. 이는 체육교사의 무용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27번 문항은 '학교에서 무용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 수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교과내용이라는 점과 무용수업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으로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는 응답이 각각 27.7%와 25.9%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28번 문항은 '학교 무용교육 개선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3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사연수 프로그램 확대(22.8%)',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17.4%)',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13.8%)', '교구와 시설 확충(13.8%)'의 응답이 있었다.

## IV. 연구 결과

### 1. 체육수업과 무용수업의 차이

앞서 체육교육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체육교과 내 무용수업은 어떤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교육과 무용교육은 어떠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현재 초등 체육교과는 건강관리와 체력증진, 여가선용의 자기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영역, 도전과 목표의 의미를 깨닫고 신체와 정신을 수련하는 도전영역, 경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경쟁과 협동을 통해 대인관계를 익혀가는 경쟁영역, 표현의 의미와 양식을 배워 창작을 수행하면서 감상과 비평을 행할 수 있는 표현영역,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신체안전을 위한 행동을 익히는 안전영역으로 나뉜다(교육부, 2015). 그중 무용은 표현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체육교과 내에서 표현영역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무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김두련(1996)은 무용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고와 감정의 자유로운 전달을 가능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개발하여 창조적 인간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소고한 바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용의 본성을 이해시키는 한편 신체의 움직임과 감정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미적 감각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김화숙(1995)은 초등 무용교육의 목적은 첫째, 표현적 신체 육성, 둘째, 공간감 및 리듬감 발달, 셋째, 창조능력 개발, 넷째, 문화전승의 변화과정 이해, 다섯째, 무용의 가치 이해, 여섯째, 감상태도의 육성, 일곱째, 바람직한 사회관계계발이라고 하였다(노미현, 2004).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초등 무용교육이란 자유로운 신체표현을 통해 내면을 건강하게 드러내고 나아가 음악 동반의 심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종합적 예술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체육 교과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고 도전정신과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체와 리듬의 합치를 통해 예술성을 나타내는 무용교육과 중첩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방향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하고 먼저 초등무용의 본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 2. 초등 무용 교육의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에게 있어 무용교육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무용의 동작을 익히고 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데에 있지 않다. 초등 무용 교육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이상적 인간 형성을 위한 것이며 리듬과 함께하는 즐거운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발달, 정서함양, 창의력 증진, 표현력 향상, 협동심 증가 등의 전인적 발전을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 많은 무용교육이지만 오늘날까지 체육교과의 일부로 편입돼 그 중요성과 필요성 역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무용 교육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미진한 인식과 몰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무용 교과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체육 교과의 범주 안에 편성돼 무용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아동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 앞서 초등 무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정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90% 넘는 교사들이 아동의 무용 교육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체육연간 계획서에 무용 교육을 배재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또 실제 교육이 진행된다 하여도 자유로운 창의력과 표현력의 구현 지원보다는 교사의 움직임에 모방하거나 정형화된 움직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무용교육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교육자의 의지 문제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만으로 무용 수업을 진행 및 평가하는데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 무용수업 시 장애요인으로 무용 지도 능력 부족을 꼽아 다른 예체능 교과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무용 교육이 일반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큼을 앞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무용전담교사의 필요성에서 '무용교육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 것 역시 이러한 점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적 커리큘럼이 무용 교육을 충분히 전개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이 무용교육의 약화를 불러 일으켰다. 체육 교과서에서 진행되는 무용 교육의 비중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8%, 중학년의 경우 15%정도로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식으로 공포된 1955년부터 오늘날까지 무용은 체육교과의 협소한 일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무용과목이 빠지지 않는 것은 무용교육이 갖는 전인적 교육의 힘이 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교과의 결과 방향성이 다른 체육과 무용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일리 있는 것이 된다.

## V. 논의

### 1. 초등 체육교과와 무용교육의 차이점

체육과 무용은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다는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무용교육이 체육교과 내에 한 영역으로 귀속된 것 역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더불어 체육교과 역시 신체활동을 통한 지·덕·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무용교육 역시 지·덕·체의 조화를 통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목표 및 이념 역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가능하다. 체육교과가 가지고 있는 기본방향이 활동적인 삶을 위한 라이프 기술로의 전환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무용교육의 본질과 부합하는 교육방향이라 할 수 있다(권지담, 2011).

그러나 체육교과는 기본적으로 기능중심의 수행을 지향하고 심미적 활동이 적다는 측면에서 무용교육을 아우르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무용교육에서는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을 함양하고 심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육교과 내에서 무용교육의 창의력, 표현력, 심미를 추구하는 것은 교과의 특성 차이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체육교과 내 체육교육과 무용교육의 차이점을 부문별로 나눠 보고 중학년(3~4학년)과 고학년(5~6학년)의 체육교육과 무용교육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저학년(1~2학년)의 경우 체육, 미술, 음악교과가 즐거운 생활로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다음 분석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 1) 창의성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교육을 통한 창의력 발달에 매우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폭넓게 급변하는 삶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문제 상황 및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능력에 있어 창의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력은 교과마다 그 모습과 지향 방향이 다소 다르다. 그러므로 창의력은 비단 예체능 뿐 아니라 인문학적, 수학적 사고 영역 등 다방면에서 요구 된다. 이에 체육교과 역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 주된 내용은 신체의 기능을 최대화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체육교과에서 추구하는 창의력과 무용 교육에서 추구하는 창의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체육교과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은 논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체의 민첩성을 높이고 그 움직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무용교육에서의 창의력은 신체의 민첩성을 높여 스포츠의 신체적 기능을 상승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는 대신 움직임의 심미성과 표현을 위해 감각적 사고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4학년의 경우 체육교육 관련 창의력은 움직임 영역의 던지기, 받기, 차기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민첩하고 노련한 신체의 활용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나 무용 교육의 창의력은 표현 요소를 활용한 다른 사람 동작 따라 하기, 리본 및 후프 체조, 즉흥 표현하기 등 조화로운 신체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구상하여 이를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5~6학년의 체육교육에서는 여러 단체게임 및 경기를 통해 공과 같은 도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경기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반면, 무용교육에서는 꾸미기체조, 창작 무용 등 무용의 주제와 신체의 표현을 매치하여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데 창의력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체육교과에서 요구하는 창의력과 무용교육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은 구분이 확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력이라는 공통 지향을 근거로 체육과 무용교육을 일체화하는 것은 두 교육 모두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 2) 예술성

예술성은 체육과 무용의 본질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이란 인간 내면의 세계를 심미적 아름다움으로 표현 및 표출하는 것으로 그 수단에 따라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장르로 나뉘며, 무용은 신체를 매개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로 분류된다.

그러나 체육교과는 건강과 도전, 경쟁을 통한 심신의 함양을 주요 개념으로 삼고 있다. 물론 체육에서도 신체와 움직임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육체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므로 예술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을 승화하려는 무용예술성과 육체미에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체육의 아름다움은 차이가 크다. 즉, 3~4학년에서의 음악줄넘기, 흥내내기놀이, 곤봉과 공 체조 수업, 5~6학년에서의 꾸미기체조, 실용무용, 외국의 민속무용을 통해 다양한 미(美)를 이해하는 활동이외에 체육에서 예술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체육교과에서 예술적 심미성 추구를 확장하기는 어렵다. 결국 체육교과 영역으로서 무용교육은 교육을 통한 고유의 가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체조와 무용을 혼동하게 하는 오류 가능성마저 내포하게 된다.

## 3) 음악적 요소

또한 무용은 단순히 내면의 신체 활동적 표현을 넘어 음악적 요소와 미술적 요소가 복합된 종합예술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체육교과에 종합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무용은 신체의 형태의 구조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리듬이라는 음악적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하게 활용하는 반면, 체육교과에서의 음악 중요성의 수위는 그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3~4학년의 경우 체육교육에서 음악에 맞춰 체조하기와 같이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활동이 있고, 5~6학년에서도 음악줄넘기와 같은 활동이 있으나 전체 체육교육에서 음악적 요소의 활용이나 비중은 주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실제 음악적 요소가 포함된 신체활동은 일면 무용으로 여겨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신체활동을 위주로 인간 내면의 발전을 꾀하는 체육교육과 신체적, 음악적, 미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신과 신체의 성장을 추구하는 무용교육은 지·덕·체를 추구하는 관점과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육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는 무용교육을 체육교과에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4) 경쟁

체육교과는 기본적으로 경쟁 활동이 많으며, 경쟁의 개념은 무용교육과 체육(스포츠)교육의 대표적 차이로 들 수 있다. 최근 체육교육이 통합적 활동을 통해 심신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체육교과의 개념정의에서 경쟁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 건전한 경쟁의 함양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적절한 경쟁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치로 발휘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체육교과에서 다루는 경쟁 활동은 그러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2013). 따라서 3~4학년 체육교육에서 태극형게임, 공파기형게임을 비롯한 축구와 농구 등의 게임수업에서 경쟁을 다루고, 5~6학년 역시 게임수업에서 경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용교육에서는 화합과 조화를 우선시하고 본질적으로 경쟁이 요구되는 활동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 승패가 확실한 경쟁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체육교육에서 필요시 되는 경쟁의 개념은 무용교육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경쟁적 요소가 중요한 교과 내에서 무용교육이 옹골게 실현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며, 무용교육의 본질이 퇴색 혹은 변형되어 적용될 여지가 빈번해진다. 체육교과와 무용교육은 신체 활동을 통해 성장과 발달을 지향한다는 표면적 의의는 동일하나, 구성내용과 목적 및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육과 무용의 교과 분리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 5) 평가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체육교과와 무용교육의 특성 차이는 당연히 평가방법에서도 드러난다. 체육교과의 경우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에서 게임의 승패, 활동의 이해력 정도,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성취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무용교육의 경우에는 앞서 열거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무용활동은 승패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개인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체표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의 판단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체육 3~4학년의 경우 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5~6학년에서의 높이뛰기와 멀리뛰기 등과 같은 활동은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해 평가가 용이하나 무용교육 3~4학년의 율동활동과 즉흥적 표현활동, 5~6학년의 꾸미기 제조와 창작무용 등은 정량적 평가만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평가기준의 부적합성과 모호성은 학습자의 동기와 성취를 촉진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인적 심신발달을 지향하는 무용교육의 교육 기능의 실현에도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 체육교과에서 무용의 분리 시 예상되는 장점

지금까지 체육과 무용의 차이를 살펴보고 무용교육은 체육교과의 기본적 목표와 구성에 적합하지 않아 본질에 충실한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교과의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많은 체육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다루어야 할 스포츠 종목이 다양해 수업시간에 어떻게 분배하여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것이다. 가령 한 종목의 스포츠를 다룰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의 장기화로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떨어져 효율적 교육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축소된 교육내용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전달해야 할 내용 및 기능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2013). 따라서 체육교사는 교육내용의 적절성과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수업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용교육의 경우 요구되는 수업요소가 체육교과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미술적, 음악

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으로 체육교사들이 수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 여지가 적어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무용교육은 체육교과에서 중요도가 낮거나 회피하고픈 영역으로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며 무용교육의 실현은 더욱 어렵게 되고, 무용교육의 등한시는 초등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초등학생의 성장 및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무용교육이 분리되어 실행될 경우 무용교육의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체육교과는 체육교과 나름대로 영역의 집중화가 이루어져 두 영역 모두 효율적 교육이 진행될 여지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의 표에서 무용교육이 체육교과에서 분리 시 예상되는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무용교육 교과분리 시 예상되는 장점

	체육교육	무용교육
창의성	움직임의 민첩성 향상에 집중하여 체육활동의 다양한 신체, 음악, 심미적 요소를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표현 역할을 새롭게 구상하는 등 체육의 기능성을 강조한 교육의 실현이 가능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갖추고 예술성 있는 신체활동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음악적 요소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경쾌한 음악을 활용하여 신체의 잠재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	리듬과 음율에 따라 신체를 움직이고 조화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음악의 구성과 요소를 체득할 수 있음
평가방법	신체활동 및 기능에 집중할 수 있고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의 평가 지침의 바탕으로 무용의 특성에 적합한 예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체능력, 표현능력, 조화성 등으로 평가가 가능함.

이와 같은 맥락으로 무용이 체육교과에서 분리된다면 현재 교육계가 지향하는 통합교육의 실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교과가 분리 시행된다면 무용교육에 대한 편성과 지원이 지금보다 강화되고 음악적, 미술적, 신체적 기능이 복합된 무용교육의 장점이 극대화된다. 물론 현재 음악, 미술, 체육 교과가 분리되어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으나 세 가지 요소가 융합되어 총체적인 조화와 균형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용교육의 의의는 남다르며 결국 초등생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늘날 체육교과는 수행 중심적 교과로 변화하며 건강한 체력의 단련과 스포츠맨십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반면 무용 교육은 체육교과와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나 신체 단련 및 스포츠맨십의 목적보다는 정서함양과 창의력 증진,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이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코 두 교육은 한 교과로 묶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체육교과 내 무용교육은 결국 상호간 밀접한 연관성이 없어 두 교육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체육교과에서의 무용교과 분리 시행은 두 교육 모두의 본질에 더욱 적합한 결정임과 동시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첫 단계임에 그 실천이 촉구된다.

### 3. 무용교육의 교과분리 방안

지금까지 체육교과 내에서는 무용교육의 핵심 교육이념이 실천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점이 초등생의 심신 발달에 무용교육이 제대로 기여할 수 없도록 저해하므로, 무용교육을 체육교과에서 분리 시행하는 필요하다는 관점을 피력하였다. 무용교육의 교과분리에 따른 문제점 및 우려사항을 타진할 수 있는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교과분리 방안의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1) 무용교육의 교과분리 중요성 인식 및 추진

현 교육계가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교육의 실천이나 적용방법에 대한 것으로 교과를 통합

하자는 통합교과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의 교과분리가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교육계 역시 이러한 교과의 분리와 적용의 통합이 다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분리 작업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무용교육의 중요성과 체육교과 내에서 시행되는 무용교육의 부자연스러움을 인지하는 관련 전문인들이어야 한다. 이미 오랜 시간 체육교과 내에서 무용교육이 진행되어 교육행정 수준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교과분리 계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 전문인들은 무용교육의 교과분리를 통한 이상 교육 실현의 타당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한편 그에 따른 근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무용 교육의 교과 분리에 대한 문제성과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무용교육의 교과분리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용교육이 체육 교과의 범주에서 소속의 비효율성이 이해되었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진행되는 체계적이지 못한 분리로 오히려 부실한 무용교육으로 거듭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의 분리는 새로운 교육의 틀과 구성을 구축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 계획안을 기획해야 하는 등 고도의 작업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리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전문 인력의 배치는 물론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하고 진행해야 교과분리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2) 무용교육의 전문성 향상

앞서의 논의를 통해 초등 무용 교육이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교육 내용에서 제시한 무용 교육을 충분히 전개하는 데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무용의 이해는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 영역인 바, 비전공자의 경우 이를 충분히 습득하고 또 그것을 다시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무용과 졸업생에게도 체육 교사자격증이 주어지나 전체 대학의 약 10%의 무용과만이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체육교사 중 무용교육을 전공할만한 자질을 가진 무용하고가 졸업생은 1년에 평균 50명 안팎으로 매우 적다. 그러므로 무용 교육의 교과 분리가 전개될 수 있게끔 무용 전공자의 체육교사 자격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당장의 무용교육 전문성을 고취하기 위해 무용 교육자의 집중적인 양성은 현재 교육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전문 무용 교육자의 양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의 교사가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무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무용교육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기존 교사가 무용 교육을 행할 때 겪는 어려움과 막연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무용 교육 기반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무용 교과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의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무용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무용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이다. 전술한 것처럼 체육교과의 일부만을 차지하는 무용교육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교육 효과를 이룰 수 없음은 물론 교사 역시 교육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에 무용만을 조명하는 무용교과를 제작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교육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제작되어야 한다. 현재의 무용교육은 교사 동작의 모방이나 형식적인 동작의 재현으로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라는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가 자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교사의 업무량 문제나 전문적 지식의 부족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부를 주축으로 하여 전문가가 구성한 초등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교구를 각 학교에 보급한다면 보다 다채로운 초등 무용 교육이 가능해 교과분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무용교육의 본질과 상황을 파악하고 체육교과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용교육은 신체적 활동과 음악 및 미술적 요소의 통합적 개념으로 학습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감각적 창의력에 의한 지·덕·체의 함양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한 도전정신, 신체건강, 경쟁의식을 고취하여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지·덕·체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체육교과와 무용교육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그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예술성에 대한 관점, 경쟁에 대한 요구정도, 창의력에 대한 해석 등의 측면에서 상호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을 체육교과에서 분리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교육의 질과 수준의 향상으로 초등학교의 발달 및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분리된 무용교육은 신체 움직임을 음악과 미술적 요소와 통합하여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해줄 것이며 교육과정 전체에서 기대되는 학습자의 심신발달은 다른 여타의 교육과 함께 혹은 그 이상의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에서는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체육교육에 소속되어 있었다.

물론, 과거 교육에 기대되는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학습 및 기능 수행의 요구가 오늘날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으므로 무용을 곧 체육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의 고유성, 자율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사회 분위기 하에서 현재의 교육과정이 교과 통합적 운영을 강조하는 복합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무용교육을 체육교과의 일부로 존치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무용교육의 본질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효과 외에도 체육교육과 무용교육의 목표 차이로 인해 두 교육의 적절한 교육 모두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질적으로, 양적으로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결코 바람직한 교육 구성이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체육교과에서 무용교육을 분리하는 것은 무용교육, 체육교과, 전체 교육의 관점 모두에서 바람직하다.

무용교육의 교과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고 그 과정은 복잡할 것이나 미루는 것은 결국 교육계 전체의 퇴보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무용교육의 당위성과 분리 시행이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교육계와 사회 전체에서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무용교육의 교과 분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교과의 방향과 무용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그를 통해 체육교과와 무용교육의 상이점을 분석을 통한 무용교육 교과분리의 타당성을 고찰해보았다. 나아가 예상되는 장단점을 제시하고 무용교육 교과분리의 예상 제한점을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원론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한편, 기존 연구 및 문헌자료에 많은 부분을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 및 학생들의 의견이 비교적 협소하게 투영된 점이 아쉽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를 통해 교육현장의 실질적 교육자 및 학습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무용교과의 교과분리 방안에 대한 더욱 구체적 해결점이 탐구 및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2016). 2009 vs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규대조표. <http://ncic.kice.re.kr/nation.revise.board.view.do>

- 김명숙, 이덕영, 이광무 (2010). 초등체육교육방법론, 도서출판 보성
- 교육부(2015). 체육과 교육과정, pp.8-9, 2015.
- 노미현(2004).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실태 조사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양옥경(2002). 초등 무용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교육대학 석사 학위논문.
- 이윤희(2003). 사회활동에 필요한 무용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세복(2006). 초등무용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훈미.
- 권지담(2011). 초등교육과정-통합이론서(II), 에듀스파(주), 박문각.
-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2013). 초등교육을 재구성하라! -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교육과정을 위하여, pp.262-264, (주)KG패스원에듀니티.
- 채순희(2006). 초등학교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 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pp.14-17, 경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미경(2011). 초등무용교육의 교과 내용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pp.71-116, 세종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정진이(2006). 초등학교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pp.17-18,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유진이(2007). 체육교사의 무용교육 교수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서울지역 중등학교 ‘무용을 전공한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pp.59-60,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배상원(2017). 한미 초등 무용 교육과정 분석 및 비교 : 한국의 2015년 개정 무용교육과정과 미국의 2014년 국가핵심예술교육기준(NCAS)을 중심으로, pp.16-18,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ABSTRACT

---

## A Study on the Separation of Dance from Physic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Namgyu Cho · Yujin Kim *Sangmyung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s the essence of elementary school dance and studies the validity of separating dance education from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for efficient application of elementary dance education. First of all, the substance and essence of dance education was researched and compared with thos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education subject. Secondly, the case of dance education separated from physical education is analyzed in terms of creativity, artistry, musical aspect, and competitiveness, and evaluation. Then, the case that dance education within physical education is also considered with the expected pros and cons. Finally, some suggestions supposed to be considered for separating dance education from physical education were proposed in hope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recognizing the matter.

**Key words** : Dance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Separation of Dance from PE, Suggestions for dance education

---

논문투고일: 2018. 02. 27  
논문심사일: 2018. 04. 02  
심사완료일: 2018. 04. 18